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⑨

중학교를 세워야 했던 이유



2012년에 지어진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의 초기 건물.

초등학교를 세운 지 3년이 지난 2011년의 일이었습니다. 학교는 교사 6명에 학생 500여 명이 재학하는 제법 큰 규모로 성장해 있었습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눈에 띄는 성과였습니다.

그러나 그 성장은 어디까지나 겉모습에 불과했고,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. 식량도, 마실 물도, 집도 부족한 마을 사람들은 남루한 옷을 걸친 채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

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는 한때 지나치게 낭만적인 기대를 품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.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고 마을에 우물이 생겨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면, 삶은 분명 나아질 것이라 믿었습니다. 그러나 몇 해가 지나 마주한 현실은 그동안 품어왔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.

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쓰라이 넷(지금은 성장해 씨엠립의 한 은행에서 근무)은 수줍지만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. "부모님이 태국에서 일하시는 동안 저는 남동생 한 명과 여동생 두 명의 밥을 챙기고 물을 길어와 빨래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."

늘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던 티잉 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물었습니다. "6학년 학생들이 많은데, 이 아이들은 졸업 후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?"

잠시 눈을 감은 교장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거두고 쓸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. "대부분은 태국으로 넘어가 막노동을 하거나,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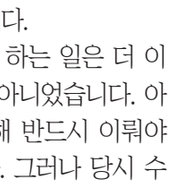
그 말을 듣는 순간, 마치 둔기에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.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처음 이곳에 초등학교를 세울 때만 해도, 문맹 퇴치가 모든 문제의 해답처럼 보였습니다. 아이들이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라 생각했고,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.

그러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자, 넘기 어려운 높은 산이었습니다.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배였고 길을 잃지 않게 해 줄 나침반이었습니다. 초등학교를 세운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. 이제 그다음 단계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. 중학교를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.

중학교를 세워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소명이었습니다. 그러나 당시 수레꾼의 통장에는 중학교를 세울 만한 기금이 전혀 없었습니다. 마음만 조급해졌습니다. 그때 문득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. 고려시대 선사 지눌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. "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라."

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깊고 또 깊었습니다. 우리가 마주한 이 황무지 같은 현실,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뜻으로 다가왔습니다.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듯, 이곳에서 다시 길을 내야 했습니다.

이 말씀은 〈수심결(修心訣)〉에 나오는 간결한 한 구절이지만, 우리 가슴에는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. 선사의 한 말씀에 힘을 얻어, 마침내 '수레꾼 뽀디봉 중학교'가 태어나게 됐습니다.



오시환
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

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⑤ 가르치기보다 스며들게 하는 전법

흔들림을 수행으로, 성장의 그늘이 되어

동국대학교 이과대학 불교동아리 '자연科 함께' 지도법사를 맡은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.

동국대 불교동아리가 이미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, 학생들이 스스로 이 공간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.

미디어로만 접하던 그 공간에 지금 제가 직접 서 있다는 사실이 새삼 깊이 와닿습니다. 신문 기사 속 풍경을 몸소 실감하니 감사하고도 영광스러운 마음이 앞설 따름입니다.

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분명하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. 이곳은 무언가를 잘 배우는 자리라기보다, 각자의 삶을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공간에 가깝다는 점입니다.

학생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, 거창한 질문보다 오히려 소소한 일상의 말들 속에서 더 깊은 이야기들이 드러납니다.

그럴 때마다 이곳에서 필요한 것은 '잘하는 수행'이 아니라, '잠시 멈추어 볼 수 있는 경험 그 자체'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.

그래서 요즘은 제 질문도 조금 달라졌습니다. "어떻게 가르칠 것인가"보다 "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"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.

동아리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. 다만 그 안에서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용히 중심을 잡아주는 일 또한 법사의 몫이라 여깁니다.

배우기보다 삶 멈춰 바라보는 공간으로
학생에 자연스레 다가가 중심 잡아주며
생활 속 수행 잇도록 그들과 함께할 터

'가르치기보다 함께 머무르고, 이끌기보다 방향을 비추며, 답을 주기보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.' 이는 말로는 단순해 보이지만, 실제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. 저 역시 그 과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.

이러한 고민은 연구자로서의 시선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.

전법특임교수로서 대학생 전법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, 불교교육연구소에서 불교교육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,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언제나 이론보다 한발 앞서 있습니다.

그래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. 전법은 설명으로 이루어지기보다 경험 속에서 스며들 때 비로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.

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면 조용히 법당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수업이 끝난 뒤 늦은 시간까지 남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.

때로는 특별한 법문보다 "오늘은 좀 힘들었습니다"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수행의 시작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.

그런 순간들을 마주하며, 청년 전법이란 거창한 설명보다 곁에서 함께 머물러주는 일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.

어쩌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도 완벽한 답이 아니라, 잠시 기대어 숨을 고를 수 있는 작은 공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.

잠시 멈추는 시간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,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일 것입니다.

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믿고,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아가는 힘. 생활 속 수행이란, 어쩌면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아직은 함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.

다만 '자연科 함께'가 학생들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고, 그 경험이 각자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이어질 수 있도록, 법사로서 저는 그들 곁에 함께 있고자 합니다.



청라 스님
동국대학교 전법특임교수

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

⑰ 참회의 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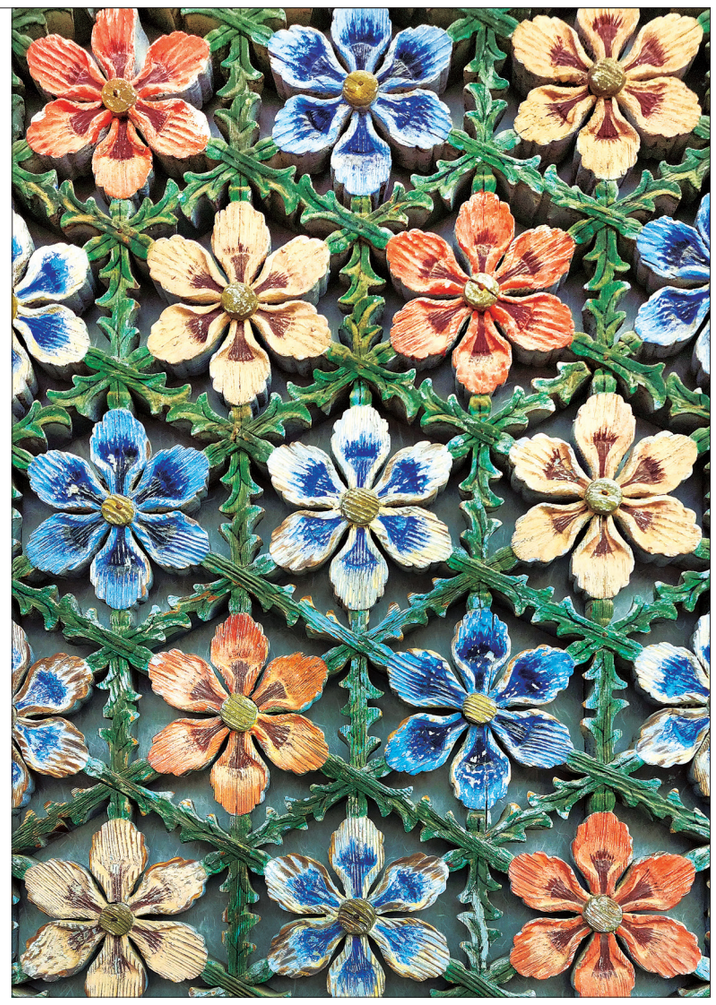
5월의 산색은 수줍게 웃는 듯한 연둣빛에서 짙은 초록으로 변해간다. 아까시나무가 구름처럼 꽃을 피울 때까지는, 등교 시간이 지난 학교 앞처럼 꽃들도 잠시 침묵한다. 바로 이 무렵에 고운 보랏빛으로 세상의 한 귀퉁이를 밝히는 꽃이 있다. 사람들의 입길에 '잎'으로만 오르는 오동나무꽃이다. 크게 자란 오동나무에 핀 꽃을 보면 봉황이 왜 이 나무에만 깃든다고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다. 벌과 나비보다는 봉황과 짝해야 어울릴 듯한 모습이다.

동화사(桐華寺)를 우리말로 풀어 읽으면 '오동나무꽃절'이 된다. 그 이름의 유래가 〈팔공산동화사사적기〉에 전한다. 사적기에 따르면 본디 동화사는 493년(소지왕 15) 극달(極達) 스님이 창건한 유가사였는데, 832년(흥덕왕 7) 심지(心地) 스님이 중창을 마치고 나서 동화사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. 심지 스님이 중창을 마치자 절 주위에 오동나무꽃이 만발했는데, 때는 한겨울이었다. 이로 하여 절 이름을 동화사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한다.

〈삼국유사〉 '심지계조(心地繼祖)'에 심지 스님이 한국불교 미륵신앙의 개조인 진표 스님으로부터 몸이 부서질 정도의 참회로 법을 잇게 된 사연이 전한다. 한겨울에 핀 오동나무꽃은 세간의 척도로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참회의 상징이다.

동화사 대웅전 가운데 꽃살문은 정교한 조각과 색채의 화사함으로 이름 높다. 심지 스님이 피운 한겨울 오동나무꽃의 변신이다. 깊은 참회는 이토록 곱게 세상을 장엄한다.

손영자 작가



동화사 대웅전.

